



2023학년도 겨울방학

전	대
愛	서
5	2



독서 에세이 공모전

2023학년도 겨울방학 전대愛서52 독서 에세이 공모전 수 상 작 품 집



2023학년도 겨울방학

전대 애서 52

독서 에세이 공모전

2023. 12. 26. 화
2024. 01. 18. 목



공모대상

본교 재학 중인 대학생 누구나

공모내용

전대애서52 중 1권을 읽고 국문으로 작성한 독서 에세이 1편

접수방법

성장마루(grow.jnu.ac.kr)에서 온라인 접수
※ 분량: A4 2매 내외, 성장마루 공지사항 서식 참고

심사기준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주제	• 글쓴이의 생각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서술 • 도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발견	50점
구성	•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주제를 효율적으로 전달 • 각 단락 간의 유기성 및 논리적 일관성, 분량의 적절성	30점
표현	•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어휘 사용과 문맥과의 조화 • 문법에 맞는 문장,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의 정확한 사용	20점

수상작 발표

2024. 2. 8.(목) 예정

※ 교육혁신본부 누리집 게시 및 수상자 개별 연락

시상내역

<p>총장상</p> <p>최우수상 1명 상금 30만원</p>	<p>교육혁신본부장상</p> <p>우수상 2명 상금 20만원</p>	<p>교육혁신본부장상</p> <p>장려상 3명 상금 10만원</p>
---	---	---

기타사항

-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 투고를 제한합니다.
-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작의 저작권은 교육혁신본부에 귀속됩니다.
- 응모작은 글쓰기 윤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표절의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 챗지피티(ChatGPT)로 작성할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 수상작이 타 기관 등의 공모에서 당선되었거나 유사한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 수상작은 수상작품집 및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교육혁신본부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교육혁신본부TV'에 게시하여 학내 구성원과 공유합니다.
- 수상작은 공익을 목적으로 편집 및 재가공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센터 ☎ 062-530-0916

수상작

최우수상	신○한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1
우수상	류○제 무뎠진 당신을 발견했다면	4
	전○현 미지의 세계를 향한 추방의 몸짓	7
장려상	안○린 삶이 여행이 될 때	10
	이○민 서투른 흔적을 떠나보내며	12
	최○환 그러니까, 사람이다	16



※ 수상작 접수 번호 순 정리

- 🔊 독서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품집은 우리대학 재학생의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교육혁신본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수상	최우수상(총장상)
도서	레프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신○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재물에 관한 모든 지리한 담론을 논외로 한다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에는 무엇이 남는가? 바꾸어 말하건대, 과연 재물이 아니고서야 구태여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은 ‘사랑’이라고 답하는 것 같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작중의 천사는 결론짓는다. 아름다운 작품이다. 왜냐하면 재물이 아닌 무언가를 본위로 삼아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실로 희망적인 소식이며,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 마지않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시사하는 의미의 명확함과 궤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한다. 만약 독자가 인생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얻고자 하는 의도로 이 작품을 펼친다면, ‘사랑’이라는 대단히 모호한 개념으로부터는 좀처럼 흡족한 결론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독자에 따라, 그리고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여지가 산재한다. 따라서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이 작품의 결론은 또 한 번 사랑이 무엇이냐는 필연적인 질문으로 독자를 인도하는데, 이는 독자에게 하나의 굴레가 되고 만다. 독자가 이러한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에 관해 독자 나름의 해석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작품이 완성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 또한 그 의미에 천착하여 나름의 해석을 제시할 필요를 느낀다.

나는 먼저 사랑에 두 가지 특성을 부여하고 싶다. 즉 다음의 두 가지 특성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첫째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대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랑의 객체를 선택하는 데는 차별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이 특성에 따르면 공통의 조건으로 묶인 집단의 구성원들은 차별 없이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대가

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행위의 동기가 그 행위로 인한 반대급부를 기대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객체에게 전달되는 것만으로 완료될 때, 그 행위에는 대가성이 없다고 하겠다.

사랑이 이상의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했을 때, 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현실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 다시 '객체'와 '동기'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객체'라 함은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을 가리킨다. 사랑은 객체를 가질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객체 없는 사랑은 그 개념의 성립을 문제 삼게 한다. 따라서 사랑의 의미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체가 존재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둘째로 '동기'라 함은 행위 주체가 그 행위를 취하는 가장 근본적인 유인(誘引)을 가리키는데, 행위는 반드시 모종의 유인으로부터 발생하므로 어떤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늘 동기를 함께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랑하는 행위는 객체를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지는지도 고려해야 마땅하다. 위에서 주체는 제외하고 객체만을 고려한 이유는, 주체가 동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때 '객체'를 첫 번째 특성과 연결한다면 사랑의 객체는 차별 없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동기'를 두 번째 특성과 연결한다면 사랑의 동기는 대가를 바라는 데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작품에 대입해 생각해 보자. 세몬이 교회 앞에 맨몸으로 쓰러져 있는 미하일을 도운 행위는 사랑이었는가? 먼저 그 행위에 객체가 존재함은 명백하며, 그 객체는 차별적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첫째로 미하일은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유일한 객체였을 뿐 아니라, 둘째로 세몬은 객체를 선택함에 있어 미하일이 한 명의 인간이라는 조건 외에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세몬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객체를 차별 없이 선택했다. 부언하건대 만약 것처럼 비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객체가 될 수 있다면, 누구든 객체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그것을 동기의 측면에서 조명하자면, 그 행위에서는 대가성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객체에 맨몸으로 쓰러져있는 인간을 도움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대가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몬의 궁핍한 사정을 고려할 때 미하일을 돕는 행위는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 곤궁하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그 행위의 동기는 대가를 바라는 데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짓건대, 미하일에 대한 세몬의 행위는 사랑이었다.

객체를 차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의 정체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연민'이라고 부르고 싶다. 곧 위에서 언급한 사랑이란 한 마디로 연민, 다른 말로 동정심의 발현인 것이다. 혹자는 이에 대해, 기실 그것의 실체가 더 나은 입장에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우월감의 반쪽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할지 모르겠다. 그것은 온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만약 그 연민이 자기자신에 대한 연민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월감의 반쪽이 아니게 된다. 사랑이 객체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에는 자기자신이 포함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 곧 연민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필연적으로 동반함을 언급해야겠다. 예컨대 세몬과 마르티나가 미하일을 보살펴주었을 때, 나는 그것이 미하일에 대한

일방적인 시혜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세몬과 마트로나가 미하일의 모습에 그들 자신의 비참함을 투영했다고 생각하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미하일을 도움으로써 그들 자신의 안식 또한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사랑은 일방적인 경우가 없는 것이다. 요컨대 나는 한 사람에게 대한 연민이, 어느새 그 자신을 포함한 초라하고 무력한 인간 일반에 대한 연민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설령 그 자신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인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 버트런드 러셀에 따르면 그것은 그의 인생에 걸쳐 지배적이었던 세 가지 열망 중 하나였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지 못한 채, 다만 사랑이라는 동인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애처로운 인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연민만이 있을 뿐이다. 무엇이 구태여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지속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그 자신, 나아가 그와 같은 처지의 모든 무력한 인간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연민이라 답하며 나는 만족해야겠다.

수상	우수상
도서	하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무더진 당신을 발견했다면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류○제

20세기 초중반 유럽에서는 한 민족을 향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참극이 일어났다. 나치스의 유대인 민족을 향한 놀라울 만큼 전략적이었던 괴롭힘과 그 악의 뿌리가 자라 나서 무자비했던 학살로서 끝을 맺은 것은 유대인에게는 12년 동안 끈 기나긴 악몽 그 자체였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스의 일원으로 히틀러의 독재 기간 동안 그의 밑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의 구덩이로 몰아간 주된 인물이다. 히틀러를 포함한 나치스의 상당수의 구성원은 유대인 민족에 대해서 의도적인 증오심을 품었으며 이권을 위해 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기 바빴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유럽의 땅에서 유대인의 흔적을 전멸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파렴치한 양심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나 아이히만은 그들과 같은 범주에 있으면서도 조금 다른 작동원리를 가진 채 움직였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는 유대 민족을 향한 히틀러의 그릇된 신념을 따르는 것이 행위의 원인은 아니었다. 즉, 그는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 장소로 이송하는 데 있어 앞장섰으나 그는 결코 유대인에 대한 개인적이고 의도적인 증오심을 품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꽤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일에 대해서는 근면 성실했으며 오히려 유대인에게 빚을 진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내면을 지닌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이러한 사람이 히틀러의 열렬한 수행원이었다는 점과 동시에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유대인 대규모 학살 행위의 주축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지점이자 고민하게 만드는 파장의 시작이다. 책에서는 아이히만이 나치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에 잡혀와 잔혹했던 그의 전범 행위의 책임과 정의를 묻는 재판 내용과 곳곳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아이히만의 내면에 대하여 다룬다. 처음에는 아이히만의 입장과 주장을 이해해 보고 한 개인의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 것 자체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책을 읽어갈수록 생각의 방향은 바뀌게 되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아이히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자의 유무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 이 상황 속에서 아이히만은 '왜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민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를 성찰로 연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성격 파탄자도 정신이상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이웃의 모습을 한 아이히만이 잔혹한 범죄

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명백하고 단순했다. ‘무사유’라는 단어는 저자가 아이히만의 치명적인 단점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아이히만은 어릴 적 가정 상황으로 인해 초기 교육에 있어 불행한 결핍을 겪었고 이에 그는 단출한 어휘력과 경미한 실어증 증세를 가졌다. 미약한 교육 속에서 성인이 된 아이히만은 나치의 유대인을 향한 선전과 거짓 놀림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히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보다는 승진과 목표 달성을 위한 본능이 앞섰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회적인 판단이 무능했다. 유대인에게 고통을 주는 조직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나는 상부에서 하달된 명령을 따랐을 뿐 내가 행하는 이송 작업이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정인지 꿈에도 몰랐다. 시간이 흘러 자신의 행동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과정임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국가적 공식 행위이자 법에 복종했을 뿐이다. 나는 한 번도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그저 일의 효율성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만약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누구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행위에 대한 ‘무능력’과 ‘무사유’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느 상관의 명령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조직의 구성원이 무능력하게 행위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아이히만의 주장 일부를 이해한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로써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이와 같이 행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고할 줄 아는 것은 인간의 기본 능력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생각’말이다. 아이히만의 무능력했던 행위보다도 행위에 대한 사유 능력의 결여가 그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든다. 어떻게 일과 조직의 효율성, 충성심과 사람의 목숨, 존엄성의 가치가 전도될 수 있는가. 그 많은 유대인을 죽음의 장소로 보낼 동안 어떻게 그런 단순한 사고조차 한 번 하지 못했는가.

아이히만의 ‘무사유’가 불러온 공포스러운 파장은 결코 당대에만 국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아이히만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문화에서 새로운 범죄로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유대인 학살과 아이히만의 사례처럼 구성원들의 사유의 무능성과 집단의 무지 혹은 욕구가 결합하면 이 같은 참극은 어디서든 발생하기 쉬워 보인다. 니부어가 ‘집단윤리’의 취약함에 대해 말했듯이 인간은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더 대범해지고 이성적이지 못한 행위를 할 확률이 높다.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집단의 구성원이 맹목적으로 이를 따를 때 초래되는 결과를 우리는 아이히만을 통해 예견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이들의 피해자로서 직접 겪은 아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악행을 이것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과연 당시 일제의 구성원 대부분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등을 지녔다면 우리가 겪은 아픔의 크기가 같았을까? 물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남녀노소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폭행과 학살을 일삼는 데 있어 피해가 조금은 덜하지 않았을까 싶다.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는 자들과는 거리가 있는 일개 구성원이라는 생

각. 그들과의 거리가 책임을 분산시킬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지해야 한다. 더욱이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확장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타인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 기술력 등이 많고 다양해지고 있다. 또 세계화로 인해 각종 미사일이나 원자폭탄 등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국가적, 민족적 관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위협을 다루는 특수자가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거나 무비판적인 개인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은 보장할 수 없다.

이처럼 역사가 몸소 보여주는 아픔과 이것을 초래하는 이유가 현대의 우리에게, 개인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사유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는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부제가 함께한다. 저자인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데 '악이란 추악하고 잔인한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모습을 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근원에서 나온다.' 여섯 명의 정신의 학자가 아이히만을 지극히 정상적인 혹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듯이 우리 주변에도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이,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아이히만처럼 될 수 있는 환경이 꽤 존재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화 사회에서는 점점 타인과 교류하는 기회는 줄어가고 세상 속에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흑백으로 보이기 쉬운 것 같다. 어쩌면 최고의 친구는 미디어 속에서 살고 있고 현실보다 미디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네모난 창 너머의 복잡한 세상은 보이지 않고 단편적인 세상만을 인지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시하지 못할 미디어와 개인화의 영향이 부지런한 사유 능력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보면 느껴져야 할 어떤 '감흥'이 잦아들고 모든 게 지루하게 느껴지기 쉬운 시대의 흐름에서 살고 있다. 내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해자 되거나 나도 모르는 방조자로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악은 어디서나 존재하고 그 발달 가능성이 어떠한 만연하기에 현대 사회에서 자신과 세상을 지키려면 우리는 사유해야 한다. 만약 어느새 무너진 당신을 발견한다면 아이히만과 같은 '무사유'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려 헤엄쳐 나와야 한다.

수상	우수상
도서	김영하, <여행의 이유>

미지의 세계를 향한 추방의 몸짓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현

여행은 스스로를 일상에서 추방하는 일이다. 여행자는 익숙하고 한결같은 공간을 제 발로 떠나 낯설고 알 수 없는 세계를 직접 대면한다. 여행자가 맞닥뜨릴 세계는 꼭 불쾌하지도 않고, 필연적으로 다정하지도 않을 미지의 세계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여행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일상의 사이에서, 잠시 숨을 돌린 어느 틈에서, 익숙한 풍경을 몇 번이고 마주한 어느 순간에서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한다. 그곳은 새로운 밥집, 카페 정도일 수도 있고, 더 먼 서울이나 부산, 대전이나 강릉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언어와 풍습마저도 다른 중국이나 파리, 뉴욕이나 멕시코일 수도 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유명한 관용구를 잠시 망각한 그곳에는 나에게 지금 걸핍되어 있는 무언가가 특별한 보물처럼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아릿한 예측이 있다. 김영하 작가의 산문 『여행의 이유』에서도 여행과 여행자에 대한 고찰을 면밀히 제시한다.

『여행의 이유』를 구성하는 9개의 차례는 작가 김영하가 겪은 여행기를 곁들여 우리가 여행하는 이유를 사유한다. 산문은 의아하게도 실패한 여행기로 시작한다. 작가가 상하이 푸둥 공항에서 겪은 일인데, 그는 중국 비자를 챙겨 오지 않아 고작 하루 만에 인천 공항으로 돌아오게 된다. 추방당한 작가는 한 달을 머물 계획이었던 상하이로 다시 떠나지 않고, 원래 그럴 계획이었던 것처럼 한국의 방에서 두문불출하며 원고를 작성한다. 작가는 왜 우리가 선망하고 소망하는 여행을 얘기할 산문의 첫머리에서 고작 한 번의 실수로, 공항 바닥만 한 번 밟고 온 상하이의 기억을 꺼내 주었을까.

작가가 상하이의 경험을 불러온 이유는 우리에게 여행의 허무함이나 무용함을 후술하기 위함은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은 책의 제목인 ‘여행의 이유’를 묻는 첫 여정이다. 이렇게 실패하고, 당황하고, 그만큼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여행하게 하는 이유, 목적, 욕망은 무엇인가. 즉, 차례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에서 등장한 단어를 빌려 작성하자면, 여행과 관련해 당신에게 내재된 무의식적 신념인 ‘프로그램’이 무

엇인지를 묻는 발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행하는가?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에서는 나를 움아매는 일상에서 회피해 새롭고 깔끔한 공간을 향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중국 고대 병법서 『삼십육계』의 마지막 「패전계」에서 얘기하듯, 우리가 종종 ‘삼십육계 출행량’을 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여행’을 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직 현재’는 과거의 기억과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한다. 이렇듯 여행은 어딘가 ‘탈출’과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 갑갑한 일상, 나의 실패와 실수가 퇴적된 공간, 더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시간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그렇다면 활기와 생명력을 지닌 여행은 결핍의 반증이요, 고통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떠나고 싶은 충동은 즉, 우리가 그만큼 불안하고 따분한 일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행에 대한 의미는 ‘그림자를 판 사나이’와 ‘아폴로 8호’, ‘노바디의 여행’에서 더 의미심장하게 엿볼 수 있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서는 ‘사람됨’으로 설명되는 ‘그림자’와 방랑자의 삶을, ‘아폴로 8호’에서는 이렇게나 작은 행성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여행 같은 인생을 얘기한다. ‘노바디의 여행’에서는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은 결국 ‘노바디’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에게 댄 이름처럼 우리는 ‘아무도안’인 사람이 되어 여행할 뿐이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여행자, 왔다가 다시 갈 사람, 한 번뿐인 대면으로 잊힐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 여행하고, 고통에서부터 회피하기 위해 여행한다. 그림자를 내려놓고, 창백한 우주를 도는 외롭고 푸른 것처럼 미지의 세계를 유람하기 위해 여행한다. 이러한 설명은 어쩌면 우리가 불행을 필연적으로 이고 있으며, 본인의 초라함을 인정하기 위해 여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여행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이다.

학생, 이웃, 선후배, 동아리의 회장, 직장의 어느 직책과 같은 매일매일의 이름표가 없어진 나는 그저 현재의 나만이 남는다. 그 순간의 나는 초라하지 않다. 그 대신 막연히 잊고 있었던 현재의 생생한 나 자신을 느낄 수 있다. 여행하는 순간에는 아주 순수하게 순간을 체험하고 있는 나만이 남는다. 마치 언어도, 풍습도 모르던 어린 생명과 유사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아는 사람이기에 받아야 할 환대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환대, 배려, 어쩌면 신중함이나 조심성, 불친절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행하며 모르는 문화에서 실수할 수 있고, 핸드폰을 잃어버려 아득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친절히 길을 알려주는 낯선 행인들, 여행자로서 새로운 탐험을 아늑하게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민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그 모든 체험 속에서 당황하고, 슬퍼하고, 놀라워하고, 행복해한 뒤에는 잠들어 있었거나 알지 못했던 세계가 열린다. 그리고 생생한 체험을 한 이후에는 불안과 고통을 무릅쓰고 어떤 이유에서든 일 보 전진한, 더 넓은 내가 되어 있다. 일상을 잃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얻는다는 것이다. 여행에서 복귀한 나는 이전의 일상을 다시 떠안게 되더라도 여행한 만큼의 세계를 얻은 사람이다. 우리는 여행을 가기 이전의 나 자신과는 다른 사

람이 되어, 용기와 신뢰를 가진 채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에 여행자는 철없는 방랑자, 무책임한 나그네가 아닌, 자신의 세계를 끝없이 탐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사이다.

23년 1월 중순에 동행인을 데리고 강원도의 강릉을 간 적이 있다. 병증 한두 개를 달고 일상마저 버거웠을 때 도망치듯 가게 된 동해 지역이었다. 아름답고 드넓은 동해의 바다와 향긋한 커피 거리를 생각하고 5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강릉은 어둡고 흐렸다. 이튿날 충혈된 눈이 나아지지를 않아서 강릉에서까지 병원을 들렀고, 겨우 나와 강문 해변으로 향하자,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러나 그날의 나를 환기하면 고단함이나 억울함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몰아치는 비바람과 해변을 독식하던 파도가 사정없이 나의 발치를 노릴 때 나는 강릉의 ‘노바디’가 되어 있었고, 눈도 못 뜰 정도의 현재가 거세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나에게 통증처럼 남아 있는 일상을 잠시나마 용인할 수 있었다. 거센 자연을 생생히 느끼고 있는 내가 온전히 살아 있었음을 아직도 기억한다. 평온함 없는 강릉의 모습이 여행 이후의 나에게까지 격동적인 에너지로 남아 있게 됐다. 여행이 줄 수 있는 감각은 이렇듯 신선하고 신비로운 것이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는 고루한 문구를 떠올려 본다. 위험이 도사리고, 고통을 불사해도 나에게서 언제나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다. 우리는 매번 벗어남과 소속됨을 반복하고, 그 안에서 마음을 성장시킨다. 여행한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주어진 찰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행은 만나지 못한 세계가 분명히 새로울 것이라는 희망과 내가 살아갈 세계를 다시금 신뢰하기 위한 몸짓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추방해 본다. 소망하고, 희망하고, 다시 버텨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한 여행의 이유, 인간이 지닌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기에 문득, 졸업과 취업을 앞둔 시점에서 이다음의 여행길이자 인생길을 떠올려 본다. 내가 실제로 맞닥뜨릴, 아직은 모르는 존재들을 떠올린다. 격동하는 불안과 함께, 서둘러 다음 행선지에 방문하고 싶다는 갈급함이 인다.

수상	장려상
도서	김영하, <여행의 이유>

삶이 여행이 될 때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안○린

멀미를 느끼던 시절이 있었다. 배나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었는데, 가만히 누워있어도 세상이 이리저리 흔들려 이유도 모른 채 여러 날을 괴로워했다. 그런데 책 『여행의 이유』를 읽고, 나의 멀미가 세상과 나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달라 뇌가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멀미는 발생한다. 나 또한 내가 나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 멀미를 느낀 것이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인간관계, 결코 바꿀 수 없는 과거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 이런 고민들은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사념에 힘없이 붙들려 있기 싫었던 나는 그것들에게서 벗어날 방책을 찾아 헤맸고, 그러다 별 기대 없이 집어 든 책 『여행의 이유』가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되어주었다. 이 책은 표면적으로는 저자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인생을 무던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꽤 괜찮은 해법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조금은 가볍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멀미가 그치게 된 것이다.

저자는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 여행을 간다’라고 설명한다. 사람은 너무 쉽게 과거와 미래에 얽매인다. 바꿀 수 없는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가 두려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 생각들은 역설적으로 삶이 너무나 안전해서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 찾아온다. 그래서 저자는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롭고 어지러운 세계로 뛰어드는 것을 추천한다. 그것이 바로 여행이고, 여행은 과거와 미래로부터 달아나 현재를 살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여행은 도망인가? 저자가 인용한 데이비드 실즈의 책 『문학은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에서도 여행을 ‘자신들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거나 미래를 회피하고 슬픔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여행이라면 그것은 결국 도망이 아닌가. 그러나 저자는 여행을 도피가 아닌 도구로 바라본다. 여행을 떠나 새로운 공간에 내던져짐으로써 인간은 다시 세상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의 정신은 일깨워진다. 이렇게 세상에 의해 고무된 정신으로 일상에 복귀했을 때, 인간은 다시 삶의 활력을 얻게 된다. 현재에 집중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저자가 여행을 통하여 ‘일상을 여행할 힘’을 얻는다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와 일상을 여행한다니, 약간의 의아함이 든다. 그러나 인간이 결국 하나의 둥글고 푸른 별을 잠시 여행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면, 삶을 여행자의 자세로 살고자 하는 저자를 이해하게 된다. 여행자의 자세란 겸손을 잃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는 책에 나온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여행을 떠난 오디세우스는 겸손을 배운 뒤에야 괴물 키클롭스로부터 도망치고 이타카에 돌아와 왕좌를 되찾을 수 있었다. 오디세우스가 만약 자신의 근거지에 돌아왔다는 이유로 겸손을 거두었다면 이야기의 결말은 바뀌었을 것이다. 한편 오디세우스는 키클롭스를 복종시킴으로써 자신의 희미해진 자아를 회복하려 하였다. 키클롭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오디세우스처럼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인간의 특성을 저자는 ‘성원권’으로 설명한다. 세상의 구성원이 될 권리. 성원권이 없는 자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어렵고, 그 권리는 타인의 인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겸손함과 존중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이 지구의 여행자로서 나의 삶을 안녕히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자의 자세가 주는 이점은 또 있다. 떠나는 이를 대하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여행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과 동행으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도 때가 되면 각자의 길로 떠난다. 그것이 바로 여행이고, 그렇기에 그들과의 이별은 조금 아쉬울지는 몰라도 대부분 우리의 여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상에서도 이 사고방식은 좋은 지침이 된다. 저자는 ‘모두 여행자라고 생각하면 떠나보내는 마음이 덜 괴롭다’라고 말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환대했다면, 그리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덧붙인다. 그동안 인연을 놓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던 나로서는 ‘환대’라는 단어가 참 낯설면서도 마음에 들었다. 타인을 최선을 다해 환대하는 것으로 나의 역할은 끝난다. 그들이 떠나갈지, 남을지는 또 다른 여행자인 그들의 몫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한 명의 여행자로서 만나는 이들을 수월히 맞이하고 떠나보내기로 한다.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웠던 ‘회자정리’가 여행에 빚대어 생각하니 한결 쉬워졌다.

무던히 그리고 묵묵히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방식이 궁금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 이 책을 만났고, 삶을 여행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여행은 결코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다. 날씨가 나쁠 수도 있고, 가고자 한 식당이 휴업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자책하거나 앞날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낼 순 없다. 주어진 상황에서 남은 나의 여행을 꾸려나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 삶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나는 불안하지만, 이제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속에서 흔들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혹여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세상에 멀미를 느끼고 있다면, 책 『여행의 이유』를 읽기를 추천한다.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보이지 않는 배낭을 짊어진 여행자가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디 세상의 모든 여행자가 자신의 여행을 온전히 즐기길 바란다.

수상	장려상
도서	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

서투른 흔적을 떠나보내며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이○민

랜덤 주사위를 굴리듯, 오직 운명만으로 정해지는 공동체가 있다. 여러분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예상하는가? 놀랍게도 이 공동체는 가족이다. 부와 모 사이를 제외하면 스스로 선택권이 없고, 항상 자식과 부모는 무작위로 만나기 때문이다. 보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와 모 역시 중매로 엮여 원치 않은 결혼을 할 때가 많았다. 즉, 그리 신성하게 취급하는 가족이라 하여도 결국엔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머나먼 관계다. 촌수로 따지면 1촌이긴 하나 세상엔 숫자로 전부 정의할 수 없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 외동인 나는 또래인 형제자매가 없고, 가족은 오직 부모님뿐이므로 더더욱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았다. 나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사춘기를 겪으며 이러한 틈은 메워지는 게 아니라 벌어졌다. 작중 주인공 ‘고아리’를 보며 내가 공감하는 게 많았던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빨치산의 딸로 태어난 여성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장례식에 찾아온 이들과의 회상, 대화를 통해 다시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을 해학적이고 아름답게 다루고 있다. 지독하게 원망했고 때론 우습게도, 멀게도 느껴졌던 아버지가 그저 ‘빨치산’이 아니라 제 아버지로 비로소 느껴질 때 ‘고아리’는 빨치산의 딸이란 무게를 벗어던질 수 있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반내골 허공을 휘날려 날아가는 아버지의 유해가 다들 해방된 결말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가족은 고아리의 작은아버지의 경우처럼 서로에게 얽매여 괴로워하거나, 혹은 질긴 유대로 살아갈 힘을 불어넣기도 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그렇다. 책에서 누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념이나 가치관의 차이는 크게 상관없다. 통하는 게 있고 공감해주기만 한다면 나이가 어떻든 허물없이 친구가 된다. 현대 사회가 망각한 지 오래라 생각했던 이웃의 정이나 가족 간의 따스한 마음이 책에선 물씬 풍겨나와 나를 포함한 독자들과의 가슴을 토닥거렸을 것이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내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졌던 것들은 죽음, 해방, 그리고 아버지란 존재이다. 먼저 죽음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책은 특이하게도 전개를 위한 장치로 ‘장례식’을 선택했다. 사실 난 이 책을 읽지 않으려 했는데,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룬다기에 우울하고 슬픈 내용일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걸, 웃으면 안되지만 우스

팡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부터 시작해 고아리 가족의 진지한 분위기가 마치 코미디처럼 느껴졌다. 분명히 책 속의 현실에선 아버지가 죽은 상태고 독자들은 이것을 인지하곤 있으나 왜인지 가슴이 아리기보단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책을 맞이하게 된다.

아버지의 장례식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아버지의 가족, 친구, 옛 동료들, 이웃들. 아리는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삶을 그들을 통해 새로이 배운다. 죽음 이후 삶을 배운다니 어찌 보면 모순 아닌가? 이미 주인을 잃은 삶이 딸을 통해 재편성되는 과정은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아버지만큼이나 충격적이다. 딸 고아리의 눈에 본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나 사회주의를 남발하며, 새농민이란 책을 달달 읽을 줄만 알지 제대로 된 농사는 쟈병이다. 더군다나 가족들은 뒷전인 채로, 누가 도움을 요청한다 싶으면 간도 쓸개도 다 내 주기도 한다. 처음엔 미련공탕이 같은 호구가 아닌가, 어떻게 가족보다 남의 가족을 위할 수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린 그의 삶을 천천히 되짚어보며 인간미를 발견할 수 있다. 과거 고아리의 삶 속에 아버지는 생생하게 존재했으나, 어느새부턴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한다. 치매에 걸려 흐려지기 시작하는 아버지의 정신처럼 말이다. 이념에 갇혀 단단할 것만 같았던 아버지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고, 그제서야 아리를 비롯한 자식들은 깨닫는다. 아버지는 단순히 아버지이기 전에 인생 속을 투쟁하던 하나의 인간이라는 걸.

죽으면 모두 끝이라고들 하지만, 한 인간의 죽음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발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고, 영원할 것 같던 모든 걸 허문 채 저 너머로 스러진다. 그러나 아리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생 자체의 씩씩함보단 달콤함을 다시금 배웠다. 자신이 보던 아버지가 아닌, 인간 고상육으로서의 삶을. 누구에게나 정을 베풀고 한편으로는 상처도 잘 알아 애써 지쳐가는 마음을 감추려 했던. 그랬기에 고상육 씨의 삶은 죽음으로 다시금 꽃피웠다. 아리가 후반부에서 아버지를 추억하며 흘렸던 눈물이 그걸 보여주듯이.

죽음 다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바로 ‘해방’이다. 히트를 쳤던 2022년 드라마인 ‘나의 해방일지’가 당연스레 떠올랐다. 척박하고 지친 삶 속에서 현대인들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 드라마는, 인간에게 ‘해방’이 어떤 의미일지를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책에서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다. 이에 나를 포함한 독자들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주인공도 ‘고아리’, 살아있는 자도 ‘고아리’인데 어째서 제목은 ‘나의 해방일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해방일지’인 걸까.

그 이유론, 이 책은 고아리의 해방이 아니라 고아리 내부에 있던 아버지의 해방을 다루기 때문이다. 6년이란 공백 속 아리의 내부에 있던 아버지는 항상 그대로이다. 스스럼없이 자신을 돌아주고 누렁지를 크게 만들어주던 아버지. 아리가 스스로도 모르게 빨치산의 딸임을 원망했던 이유 중 그것도 있을 테다. 결국 그 빨치산이란 낙인이 아버지를 자신으로부터 빼앗아간 주범이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책 속 고아리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를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 속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전에 어설픈 청춘이었고, 평범하게 욕망을 지닌 한 남성이기도 했으며 우정에 죽고 못 사는 열혈이기도 했다. 유년기

의 우리는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점점 비틀릴 때 성장통을 겪는다. 나 같은 경우야 외모부터 성격까지 아버지를 빼다 닮은 탓에 성인이 된 지금도 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은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결국 그런 점이 현재 곳곳한 나를 만들긴 했지만. 아리 역시도 닮은 듯 닮지 않은 자신을 보며 스스로의 아버지를 가뒀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자식 안에 새겨진 아버지가 외부의 아버지와 합쳐지며 진실한 가족애를, 자식이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깨우쳐가는 이야기이다. 이런 아름다운 일지엔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자연스레 웃으며 공감하게 된다. 아버지의 존재가 상처가 되었던 지난날을 넘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된 아리는 찬란하다. 아버지의 해방에 맘놓고 웃을 수 있게 된 그녀의 미래는 이제 아버지가 없어도 반짝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아버지’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위에서 언급했듯 나와 아버지는 친구들조차 붕어빵 부너라 말했을 정도로 닮았으며 성격조차 비슷하다. 그랬기에 내게 아버지란 인생의 길잡이기도 하고 가장 닮은 친혈육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통의 아버지는 늘상 어머니보단 양육자로서의 입지가 낮은 편이다. 가부장제의 사슬에 묶인 사회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아버지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고 어머니는 현모양처로서 자식 양육을 도맡아 하는 것이란 편견이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한다. 그렇다면 아리의 아버지는 어땠을까? 고상욱 씨는 참 신기하게도, 가부장적인 것 같으면서도 매우 열린 시선을 가진 인물이다. 딸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머니보다 동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원하게 그녀를 두둔해주기도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난 일순간 사람은 역시 한가지 성질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엔 누군가의 인간 고상욱 씨가 아닌 오직 아버지로서의 고상욱 씨와 아리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부분엔 묘하게 공감되어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도, 내가 아버지한테 느꼈던 서운함이나 티격태격하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과거가 있었다. 부모가 처음이기에 어설프고 우스웠던 그의 발걸음.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도 한없는 사랑과 감사함을 느끼는 자식. 나 역시도 어렸을 적 아버지와 추억들이 몽글몽글 떠올랐다. 함께 탁구를 치던 기억, 아빠를 따라가 테니스 대회를 응원하던 기억, 자전거 뒤에 타 강가를 구경했던 기억, 운동장에서 캐치볼을 했던 기억 등등. 그것들은 미래에 내가 혼란스럽거나 괴로울 때 극복하게끔 도와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아버지란, 무뎉뎉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 스스로가 당신의 자식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든다. 현재 성인이 된 난 가끔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렵기도 한다. 어른이 되어 느끼는 막중한 책임감이나 어색함은 자식으로서 벗어나긴 쉽지 않으므로.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조금씩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부모의 입장과 자식의 입장을 다방면으로 보여주어 사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케 한다. 해방일지 속 등장하는 인물들은 독특한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소시민이다. 그들의 삶은 고되고 우여곡절이 많아 현세에서의 해방을 갈구하는 것 같으나, 그 누구보다 삶을 열심히 일군다. 학수, 황 사장, 박 선생, 담배를 같이 피우던

아이 등등 시선의 높낮이에 따라 아버지는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거나 아니면 알고 있던 사람 그대로이다. 거창해 보이는 해방이란 단어는 결코 도망이 아니다. 이 해방일지는 인간 내부의 껍데기를 넘어 진정한 자신으로 피어나는 과정이다. 해방의 결과가 죽음일수도, 어떨 땐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아픔과 시련을 겪고 한층 나아가는 인간의 마음은 훨씬 반짝인다. 따스한 정에 둘러싸여, 이제는 아버지처럼 해방의 길로 천천히 나아갈 아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본다. 가뒀던 겨울이 가고 이제 자유가 움트는 봄이 온다. 어느덧, 해방이 온다.

수상	장려상
도서	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

그러니까, 사람이다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최○환

책을 읽는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깟 사상이 뭐라고, 다 낡아 바스러진 꿈을 안고 살아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딸의 말마다, 세상을 챙기기 전에 본인 가정부터 잘 챙기라고 호통치고 싶었다. 작중 아버지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인간 유형이다. 정의와 평등과 같은 대의를 내세우며 저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가는,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아내와 딸에게는 무책임한 사람. 그의 선의를 위한 희생은 언제나 고스란히 아내와 딸의 몫이었다. 아내는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 운명이라지만, 딸은 도대체 무슨 죄란 말인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빨갱이의 자식’으로 태어나 평생을 낙인찍혀 살아와야 했던 그녀의 마음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랬던 딸이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생전 세상에 뿌린 다양한 인연들이 그의 죽음과 함께 헤쳐 모여, 딸에게 새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선사하는 것이었다. 딸의 기억 속, 철저한 사회주의자로만 존재했던 아버지는 그렇게 재창조된다. ‘빨갱이’에서 딸의 박사 진학을 기뻐하는 보통의 ‘아버지’로, ‘유물론자’에서 성욕을 가진 여느 ‘남성’으로, ‘혁명가’에서 치매를 앓아가며 죽음과 가까워지는 무력한 ‘노인’으로 말이다. 딸이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명명 속에 평생을 갇혀 살아왔던 것처럼, 아버지 또한 ‘사회주의자’라는 명명 속에 평생을 갇혀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죽음으로서야 그 굴레에서 해방되어 온전히 딸을 마주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다가왔다.

책을 어느 정도 읽어 나가면, 소설의 기본적인 플롯이 보이기 시작한다.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아버지의 지인들과 함께, 몰랐던 아버지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며 그의 진면모가 드러나는 식이다. 아버지에 대한 미담 일색으로 흐르면, 자칫 진부할 수도 있는 플롯이었다. 하지만 저자는 아버지를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만 미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의도했던 것은 아버지 이전에, 그저 한 인간의 제대로 된 복원이었다. ‘사회주의’라는 사상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었던 한 인간의 복잡한 생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세상의 복잡성 말이다. 책을 다 읽고 나면, 그간 편협하고 선불렀던 인간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반성하게 된다. 정치적 견해나 성적 지향, 세대 차이, 종교적 지향 등 몇 안 되는 잣대만을 기준으로 인간을 정의하

고 판단해 왔던 나의 오만함을 말이다. 비단 나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해 왔던 잣대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강력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잡하고 양면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러한 잣대만으로 판단하고자 했던 것은 얼마나 철없던 생각이었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인간을 구성하는 한 가지 단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뒤늦게 깨닫는다. 곧이어 내 주변 사람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된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내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책을 덮음과 동시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가왔고, 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한편, 인간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작중 아버지는 도움을 받았음에도 은혜를 갚지 않거나, 도리어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을 향해 입버릇처럼 ‘금계 사램이제’라는 말을 내뱉는다. 아버지의 이 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말 못할 복잡한 사정을 갖고 있고, 따라서 조금은 못한 행위라도 너그러이 넘어가 주겠노라는 관용의 상징이다. 오히려 그러한 못남, 불완전함이 아버지에게는 살아 숨 쉬는 인간의 조건이자 증명인 것이다. 이는 동시에 아버지 본인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다. ‘금계 사램이제’라는 아버지의 말은 실은 스스로가 못한 아빠이자 남편으로서, 딸과 아내에게 내뱉는 자기변명이기도 한 것이다. 많이 미안하지만 나 역시도 한 사람에 불과했으니, 그 모자람을 용서해 달라. 책을 덮으며 딸과 함께 독자인 내가 눈시울을 붉힐 수 있던 까닭은 바로 아버지의 이러한 불완전함, 아버지 역시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공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짓게 하는 것은 그래도 너와 내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조금 모남에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각과 공감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고 불완전한 우리네 인생은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와 같은 사상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사람은 결국 같은 사람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복잡한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의 삶이, 장례식에서 그가 뿌리고 간 인연들로 인해 다시금 새롭게 쓰여지는 것처럼.

책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아버지가 남성으로서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밤마다 아픈 자신을 괴롭혔다는 어머니의 회상 장면이다. 아버지 역시 그러한 면에서는 그저 한 남성에게 지나지 않았음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다가도 피식 웃게 된다. 이는 아버지로 대변되는 한 인간의 다원성과 불완전함을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토록 복잡한 인간의 생애 앞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더더욱 사람을 속단하고 예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래도 한 번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금계 사램이지’하며 사정을 헤아려보려 노력해야겠다는 것이다. 관용과 인내가 매우 부족한 세상이다. 조그만 흠결이라도 잡아내어 굵어 부스럼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흔하다. 그들에게도 저 하늘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닿길 바란다. 나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배척하고 끊어냈던 예전의 인연들을 떠올린다. 이런저런 사정일랑 잊어버리고, 언젠가 ‘항꾼에’ 웃으며 그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2023학년도 겨울방학 전대애했서52 독서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품집

발행일 : 2024년 2월 16일

발행인 : 양영희

편집인 : 정다운

발행처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센터

주소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화 : 062-530-0916

누리집 : <http://ile.jnu.ac.kr>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2023.